

충북 영동군의 농촌지도사업

전태하* · 최창욱** · 정한모**

*충북 영동군농업기술센터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in YoungDong County, ChungBuk Province

Tae Ha Jeon* · Chang Wook Choi** · Han Mo Chung**

*YoungDong County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College of Agriculture &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ummary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in YoungDong county, ChungBuk province have tried and changed many things to overcome difficult situations since localization of extension services in 1997. The county Rural Guidance Office changed the name of the office as county Agricultural Technology & Extension Center (ATEC), and has been operated as a service center for all people who need help in agriculture.

The recent efforts of the ATEC have been placed on eco-friendly agriculture and sustainable agriculture for protecting the natural environment of the county as well as production of safe agricultural products. In order to overcome difficult situations under the IMF, the ATEC has tried to find new ways for the extension services because of reduced extension educators under the IMF restructuring.

The followings were a few examples of many efforts in various fields to overcome difficult situations in the rural county; 1) The ATEC has supported services to produce safe and high quality agricultural products and to increase their high value through extension services for food processing. 2) The ATEC has opened experimental fields for farmers who want to learn new technologies to cultivate grapes, persimmons, apples and pears etc., specialty fruit trees in the county. 3) The ATEC has implemented many kinds of program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extension educators to serve better.

I. 서 론

급변하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생활양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역할은 인간에게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원초적인 기본개념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산업화와 인구증가에 따른 환경의 파괴는 농업도 다른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

을 위한 환경농업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농촌지도사업 역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기관의 명칭이 복합적인 지도사업개념의 농촌지도소(Rural Guidance Office)에서 기술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농업기술센터(Agricultural Technology & Extension Center)로 변경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기술농업의 연구와 지도가 더 한층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급격하게 불어닥친 IMF 관리체제는 여러 산업구조에 뼈를 깎는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도인력의 감축은 새로운 지도방법의 도입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영동군은 24%의 인원이 감축되면서 읍·면 상담소가 폐지되었고 3개 계가 줄어 기존에 수행해 왔던 농촌사회분야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효율적이고 활력 있는 지도 방법으로 품목별 연구회와 학습단체를 중심으로 읍면 담당자를 지정 주기적인 출장을 비롯하여 야간영농상담과 순회영농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농업인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조리기능사양성반 과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인기 있는 과목으로 신청자중 계획 인원만 선발하여 교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술보급 분야는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새로운 작목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존 특화작목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아울러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분야에도 비중을 두고 있으며 지역농업 개발센터에는 영동의 특화 작목인 포도, 감, 사과, 배 등 과수중심의 시험포를 조성하여 농업인이 직접 와서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신기술 실증시험포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많은 농업인이 연중 견학하여 기술을 배워가고 있다.

영동농업에서 가장 소득 비중이 높은 포도는 대목별 접목시험 재배로 우리지역에 적합한 대목을 선발 중에 있으며 30여개 포도품종이 결실되어 농업인들의 품종선택에 좋은 표본이 되고있다.

교육사업인 농촌지도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수한 지도인력의 육성이 선행되어

야 하기 때문에 자칫 지방화에 따른 정체성의 타파와 직원자질 향상을 위해 각종 교육·연수와 연구회·학회 가입은 물론 어학·기술자격증 취득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방화는 농촌지도사업에 있어서도 과거 상명하달(上命下達)식의 체제에서 이제는 지역적 특성이 독특하게 발전될 수 있는 체제로 전환이 되어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농업의 발전이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을 위한 서비스기 관임을 항상 생각하며 고객 중심의 지도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II. 일반현황

1. 영농여건

서울(212.4km)과 부산(232.1km)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영동군은 경부선철도와(고속전철) 고속도로, 국도가 관통하는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전북, 경북, 충남 등 3도가 접하고 있는 금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 경관이 뛰어나고 기상재해가 적은 곳이다. 1읍 10면 모두 농업이 주산업이며 78%가 산으로 일찍부터 다양한 과수와 표고 주산지이며 포도는 전국 시군 단위 3위 2,455ha 면적으로 영동농업의 주 소득 원으로 자리하고 있다. 영동은 중부지방의 하단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기후의 특성은 평균기온이 11.5℃로 최고온도와 최저온도가 큰 편차를 보이는 중산간지의 특성이 있다.

〈표 1〉 기후특성

구 분	기 온 (℃)			연강수량 (mm)	서 리			강설일수
	평 균	최 고	최 저		초 상	만 상	무상일	
평 균	11.5	35.6	-17.2	1,167.6	9월27일	5월18일	158일	36.7일

〈표 2〉 유형별 경지면적

구분	논					밭				
	보통논	미숙논	사질논	습 논	계	보통밭	미숙밭	사질밭	습 밭	계
면적 (ha)	627	574	4,923	143	6,267	3,880	535	1,295	47	5,757
분포 (ha)	10.0	9.2	78.5	2.3	100	67.4	9.3	22.5	0.8	100

〈표 3〉 표고별 면적

구분	계	100m이하	101~200m	201~300m	301~400m	401~500m	501m이상
계	ha	12,024	109	6,946	3,222	1,058	292
	%	100	0.9	57.7	26.8	8.8	2.4
논	ha	6,267	56	3,624	1,679	551	207
밭	ha	5,757	53	3,322	1,543	507	142

경지의 특성을 보면 논 토양은 금강의 영향으로 충적토인 사양토가 많으며 밭 토양은 산이 많은 특성상 돌이 많아 물빠짐이 좋은 양토가 많다.

표고별 농지 분포는 해발 100~300m에 85.4%가 분포되어 있으며 400m가 넘는 준 고랭지에도 5.8%의 경지가 있어 여름철에도 일부 지역에서 고랭지 채소가 재배되고 있으며 포도의 경

우 출하시기 폭이 커서 농가의 소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일찌기 다양한 과수(감, 호도, 사과, 배, 포도, 자두)가 재배되었던 것은 기후의 특성과 돌이 많은 토양이 과수재배에 적당한 일교차와 미량 원소의 공급으로 과수재배에 적합했기 때문이었다.

〈표 4〉 영동군 과수재배 현황

'99. 9현재

구분	농가수(호)	면적(ha)	주품종비율	예상생산량(M/T)
포도	5,025	2,454.9	캠벨(66%)	51,300
사과	897	449.2	후지(93.5%)	9,900
배	593	245	신고(81%)	4,410
복숭아	337	93.2	유명(45.1%)	1,530
자두	435	145.8	포모사(65.8%)	-
감	6,200	315	-	2,320

〈표 5〉 지역별 영농유형

농업지대	읍·면	지목	영농유형	특기사항
중부중간지대	영동읍, 양강, 심천면	논	벼+마늘, 수박+채소, 딸기+벼, 시설채소	포도면적증가 (시설포도)
		밭	고추, 담배+들깨, 콩	포도면적증가
동부중간지대	용산, 황간, 매곡, 추풍령면	논	벼+마늘, 담배+벼	포도면적증가
		밭	고추, 콩, 담배+들깨, 감자	포도면적증가
서부중간지대	학산, 양산면	논	마늘+벼, 수박+채소	포도면적증가
		밭	수박+김장채소, 고추	포도면적증가
남부산간지대	상촌, 용화면	논	마늘+벼, 담배+벼	포도면적증가
		밭	고추, 콩, 담배+들깨	포도면적증가

영동지역의 영농유형은 축산분야를 제외하면 (표5)와 같다.

금강을 끼고 있는 양강, 양산, 심천면 지역은 수박, 시설채소가 많이 재배되고 있고, 기타 중간지대와 산간지대의 영농유형은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각 지역에 공통적인 특징은 포도 재배면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노지 재배에서 시설재배로 작형의 전환이 늘어나고 있다.

2. 기구 및 정원

1·2차 구조조정이 끝난 현재 영동군 농업기술센터는 2개과 6개담당으로 3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농업진흥과에는 생활개선분야의 능동적인 지도를 위해 직제에는 없지만 생활개선팀을 자체로 운영하고 있다.

기술개발과는 영동지역의 특성에 맞게 과수개발팀이 있으며 식량작물 분야와 환경농업을

담당하는 작물환경팀, 채소·특작과 축산분야, 새로운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기술개발팀이 조직되어 있다.

- 농업진흥과 : 지도기획, 인력육성, 경영정보(생활개선 : 자체운영)
- 기술개발과 : 작물환경, 과수개발, 기술개발
- 정 원 : 38명
 - 지도직 : 32명 (농촌지도관 3, 농촌지도사 25, 생활지도사 4)
 - 별정직 : 1명 (농기계교관)
 - 기능직 : 5명 (운전기사3, 사무·조무 2)

3. 예산 현황

금년 예산은 28억 정도 되는데 청사 신축비 20억을 제외하면 실제 지도분야의 사업예산은 8억 정도로 적은 편이다.

Ⅲ. 지도방향

1. 기본개념에 충실한 지도사업

농촌지도사업은 민주적이고 협동적인 교육사업이라는 기본 정신을 살려, 모든 사업의 계획과 실행 그리고 평가 과정에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농정, 농협, 축협, 농진, 인삼조합 등)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사업의 심의와 평가과정에 참여시켜 유사한 사업의 중복과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농업인과 함께 문제를 풀어 가는 개발사업

농업현장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해결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게 하는 것이 영동군 농업기술센터의 지도 방법으로 업무 담당자별로 농업인이 제시한 문제점을 체계적인 시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농림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농업인 개발과제

이외에도 실증시험포에 지역특화작목의 다양한 재배시험을 하고 있으며 축산분야는 전문지도사(축산기술사, 수의사)가 양축농가 현장에서 가시적인 시험으로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전문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가 아닌 농업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점의 연구개발이 농업인과 함께 추진되고있으며 이것이 농업기술센터가 수행해야 할 분야라고 본다.

Ⅳ. 중점사업 성과

지역농업기술의 선진화로 살기좋은 복지영동 건설이라는 자치단체의 목표를 기술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주곡의 풍년농사 달성등 10개과제를 선정하고 중점 추진하게 되었고 그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주곡의 4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

영동지역은 과수, 채소, 특작부분의 농사를 중점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벼농사는 2,900ha정도의 적은 면적이지만 주곡은 자급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술지도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보급종 위주의 우량종자를 54톤 보급하고 500kg이상 다수성 품종재배 면적을 80%로 확대하여 우선 품종에서부터 풍년농사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깨끗한 들판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잡초, 잡수, 병충해 우심농가등 491농가를 특별관리하고 지도하여 92%의 개선 효과를 거두었고 병해충 종합방제기술을 실천토록하여 경영비를 적게들이고 꼭 필요한 시기에 병충해방제를 실시하는 최소방제 기술지도에 앞장섰다. 공동방제 2회를 건의하여 방제효과를 높였고 비래해충인 멸구는 정밀한 예찰을 실시한바 비래가격고 확산의 기미가 없어 리후렛을 제작하여 멸구약을 쓰지 말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농가 경영비를 줄인 것은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2. 특화작목의 명품화 지도

영동지역은 포도, 감, 사과, 배, 복숭아등 다양한 과수의 주산단지로서 특화작목에 대한 명품화를 위해 타 시군보다 대규모의 집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6년 충북도에서 과학영농 특화지구로 지정되어 매년 27억원씩 5년간 135억원이 투자되었으며 대규모 투자에 맞추어 기술지원에 총력을 경주하게 되었다.

가. 고품질 포도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전국의 군단위로는 최고의 면적인 2,500여ha의 포도를 재배하고 있으나 캠벨얼리 품종이 70%정도로 편중되어 있고 고품질의 4배체 품종은 보급이 미미한 상태이며 만생종인 새단과 MBA품종이 30%가까이 재배되어 있었다. 또한 미숙과 발생, 생리적 휴면병 발생, 삼목묘 재배로 인한 조기 노화현상과 뿌리활력 저하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95년 소장으로 부임 후 지속적인 품종개량과 고품질 포도재배만이 영동군 포도가 나아갈 길이라고 판단하고 옥천 포

도시험장과 원예시험장등과 협조하여 4배체 품종 약 40여종, 풋트묘 1,500여주를 포도회 회원들에게 분양하여 적응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포도 대목은 센터에서 조직배양으로 증식한 묘를 읍·면별로 독농가를 선발하여 300여평씩 대목 모수원을 만들어 인근에 보급토록 하여 접목묘를 재배하고자하는 농가는 어디서나 쉽게 대목을 구할수 있게 되었다.

대목은 많이 공급되었으나 접목기술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99년의 경우 실증시험포장에서 육성한 대목 54,000주를 보급하면서 접목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지역별로 3회에 걸쳐 접목실습 교육 350명을 시켰으며 활착율을 조사해본바 80%의 성공율을 거두었다. 이제 접목재배는 정착단계에 접어들게 되었으며 고급 포도로의 품종갱신도 가속도가 붙게 되었다.

품질의 고급화로 타 지역과 차별화를 이루기 위해 '98년도에 대립계 포도연구회를 조직하고 4회에 걸친 현장교육과 선별, 포장개선으로 상품의 품위를 높이도록 주력하고 있으며 실증시험포장에 신육성 대립계 포도 10여종을 확보 재배하면서 적응시험을 하고있고 하우스 재배등 작형개발로 단경기 출하를 피하고 있다.

나. 배 수출단지 조성

전국적으로 과잉 재배되고있는 배는 국내소비보다는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배 수출단지를 '98년도부터 조성하게되었다. 배 연구회원을 중심으로 희망회원 39농가에 40ha의 적은 규모로 단지를 조성하고 교육 3회, 엽 시료채취 7회등 수출여건에 맞도록 지도하였고 캐나다에 10kg 박스당 26\$의 가격으로 45톤 수출계약을 맺었으나 수출대상국의 노조파업으로 수출선적이 지연되는등 어려움을 겪었으며 금년 초에는 대만등지에서 수출을 요구하였으나 물량부족으로 수출

을 하지 못하였다. 이제 배 연구회를 중심으로 생산기술향상 연찬회등 교육과 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다.

다. 감의 생력화 명품화

영동군은 군의 나무도 감나무이고 시내 가로수가 감나무로 조성되어 있으며 감나무 생육에 적절한 기후이다. 감은 산림품목이기는 하지만 지역의 특산물로 명품화를 위해 품종개량등 기술지도에 참여하게 되었다. 기존의 감나무는 수고가 높아 수확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왜화 재배를 위한 2중 점목재배를 시도하였고 2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감 가로수의 특색을 살리고 볼거리 제공을 위해 한 나무에 2~3개의 품종을 80주에 고집 하여 성공을 거두었으며 영동군의 감은 주로 꺾감용으로 재배되어왔으나 탈삼을 통한 생식용으로도 활용키위해 신품종 감과원 250ha를 신규로 조성하였다.

라. 사과 생력화 기술보급

사과는 군내 재배면적이 500여ha로 교목성이 대부분으로 기존과원의 생력화를 위한 왜성화 교체가 절실하다. 사과 연구회원 30여명을 중심으로 M9대목 자근묘를 집중 육성하여 7.5ha에 확대 시켰으며 사과연구회장 과수원 2,500평을 시범교육장으로 상설운영하고 있다. 또한 수정을 향상을 위해 수정별 13.1ha분을 보급하여 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환경농업 실용기술보급

토양검정을 통한 과학적인 시비기술 보급을 위해 밭토양 정밀검정 2,400여점과 농협의뢰분 및 민원검정 1,100여점등 3,500여점의 토양검정을 실시, 시비 처방서를 발급하고 처방서 활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인삼포 예정지, 과수 생리장애 진단등 영농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검정실을 요긴하게 활용하였다. 영동군은 '96년에 종합실험실을 설치하여 토양검정, 가축 질병 진단, 조직배양, 병충해 진단, 기상관측 등 한 장소에서 모든 검정과 실험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인력과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도 절감하고있다.

영동군은 논은 적고 과수원등 밭토양이 많아 농약, 비료등으로인한 환경오염 요인이 많은 지역이다. 이를 감안하여 환경오염을 줄일수 있는 농업을 위해 호밀재배를 착안하여 우선 가장 많은 면적인 포도원에 호밀재배를 추진하게되었다. 호밀은 동해에 강하고 뿌리가 깊게 뻗어내려 토양의 물리·화학적 개량효과와 중금속등 오염물질을 해독하고 겨울철 푸른들을 만드는 데에도 효과가 있으며 잡초 방제도 되고 성숙기 예취로 퇴비를 별도로 주지 않아도 양질의 유기물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 '95년 5ha로 시작된 호밀재배는 '99년에 700ha에 파급되었고 지금은 포도원뿐만 아니라 모든 과수원에 재배되고있으며 중자 문제만 해결된다면 더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호밀재배에 따른 시비량 조절과 관리방법도 정착되어 가고있다. 사과, 배과수원에도 호밀을 재배하니까 토양 물리성개선으로 뿌리에 산소공급이 잘되어 병이 적어졌으며 감, 자두등 경사지의 과수원에도 여름철 예취후 바닥피복으로 토양유실도 방지되었다는 농업인들의 평가이다. 지구의 온난화와 오존층이 파괴되는등 환경오염이 심각한 현 시대에 호밀재배를 통한 환경 오염방지는 환경노업차원에서 모든 과수농업인들이 실천해야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4. 농산물 유통과 경영개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도 유통기술 부족으로 제값을 받지 못한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소비자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영동 Word

Mark를 고안하여 전 과종의 포장재에 공동 브랜드화 하였고 밀폐박스, 오픈박스, 소형 박스 등 다양한 포장재를 개발하였고 포도즙박스를 개발하여 12만대를 공급하였다.

농산물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95년 농업인과 관계공무원 10여명이 프랑스, 이태리 등 포도관련 선진국을 방문하고 이듬해인 '96년에 토속 포도주 제조를 위해 기술개발에 착수하였고 각 농가에서 시제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그 결과 '97년에 영동포도가공영농조합법인이 탄생되었고 '99년에 "샤트마니"라는 포도주를 생산 시판하게 되었다.

또한 포도 성숙기에 잦은 강우로 인하여 열과가 발생되고 너슬포도의 유통개선을 위해 포도즙 가공교육을 추진하게 되었다. '97년에 군비를 확보하여 포도즙 포장기 60대를 공급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당년에 80억원 이상의 부가가치 향상효과를 거두었고 이제는 정착화되어 택배를 통한 판매 비중이 높아 지역특산품으로 발전되었다.

5. 농업인 애로기술의 개발보급

내 고장의 문제점은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현장 애로기술을 발굴하여 자체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99년에는 포도 접목 친화성 연구로 접목 재배의 적기가 6월 중하순이고 녹지 대목에 숙지접목을 하여야 영동지역에서 활착율이 가장 높다는 시험결과를 얻어 실용화 시켰으며, 표고목 수분조절 방법연구, 포도가공 부산물 사료화연구 등 지역실정과 지역에 가장 필요한 기술을 연구, 보급하고 있다. '96년 이후 현재까지 24건의 연구과제중 포도 비가림 시설개발사업은 포도밭 호밀재배와 함께 가장 두드러진 기술개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개량 비가림 시설은 기존의 비가림시설을 20cm정도 높여 비닐이 위에 닿지 않아 고온장애를 받지않

았고 숙기촉진, 당도증진, 병해감소등 획기적인 기술로 평가되었으며 '99년까지 3개년간 군비 57억원을 들여 224ha에 개량비가림시설을 보급하여 저공해, 고품질포도를 생산하고있으며 그 외에도 등의 사과를 활용한 사과고추장 제조기술, 과원 호밀재배시 예취적기 판단 등은 농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영농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추진하여 실용화되면서 기술센터를 바라보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단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6. 작목별 연구회 활성화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촌지도자, 농업인 후계자, 4-H회, 생활개선회 등 기존의 학습조직체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영동군에는 농촌지도자를 비롯한 기존의 농업인단체회원이 2,224명이 있고 이들 단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회의와 교육을 실시하고있으나 각 회원들의 영농 주작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적었다. 또한 이들 단체의 성격이 친목단체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목적의식이 뚜렷하지 못하고 기술센터에서 단체에 대한 지원이 없을 경우 언젠가는 돌아설 수 있는 단체라고 볼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활력화를 기하기 위해 품목별로 연구모임을 구성하기로하고 '97년에 대립계포도 연구회 등 3개 연구회를 시험적으로 조직하여 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추진한 결과 기술수준과 영농 주 작목이 같으며 본인의 영농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도움이 되는 기술습득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교육과 선진지 견학의 효과가 아주 높았다. 현재 영동군에는 농업인 연구모임이 사과, 복숭아, 감 등 17개 품목에 700여명의 회원과 전문지도사를 작목별로 1명씩 지원팀으로 조직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99년도에 연구회 중심의 교육

행사를 34회에 1,8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자생력 있는 단체로 육성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99년 지역축제인 난계 국악축제 기간동안 포도, 배, 사과 연구회가 공동 주관이 되어 농특산물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품목별 품평회와 축제 참가자들이 현장 참여하는 먹기, 각기, 무게 알아맞추기등 이벤트 행사와 판매를 겸하여 추진한바 외부 관광객과 지역주민, 지역 언론등 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기술보급을 위한 모든교육은 작목별 연구회원을 참여시켜 이들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교육을 현장위주로 추진하여 교육의 효과를 배가시키고 시범사업도 연구회원위주로 선정하여 효과를 높이고 자생력을 길러줄 계획이다.

7. 능력있는 농촌여성 육성

농촌생활개선은 말 그대로 생활을 바꿔 보자는데 그 의미가 있고 생활개혁을 통해 농촌을 개발하고 환경과 조화로운 농촌을 만드는 것이 생활개선의 최종의 목표라고 생각된다. 20세기 후반부터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범위가 확대되면서 활력있고 의욕있는 생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에 대한 교육은 많은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99년도에 조리기능사 양성반등 생활과학기술교육은 5개과정에 2,317명을 교육시켰다. 한식조리기능사 양성교육은 '99년까지 3년째 80여명 교육을 실시하여 60명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그중 18명이 학교 급식소 등에 취업하여 활동하고 있다. 조리기능사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자격증 취득율이 높아 신청자가 많아 예비 시험을 치러 적정인원을 선발한 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생활개선회원등 농촌 여성이 주축이되어 내 가정의 부엌에서부터 환경보호는 시작된다는 인식을 고취시키고

내고장 환경은 내가먼저 앞장서서 공해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여성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저공해 비누만들기, 장바구니 만들기등 환경보전 실천교육을 읍면 순회교육으로 매년 500여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통문화 계승과 보존을 위해 군단위 생활개선회원 40명으로 구성된 풍물놀이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단위 각종 행사시 사물놀이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등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지킴이로 육성하고 있다. 또한 도·농 여성교류확대를 위해 '98년부터 서울, 대전등 대도시 주부를 초청하여 포도따기 1일 체험행사를 4회 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현장체험도하고 인근 관광도 하며 직거래로 1,5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기도 하였으며 서울등지에서 참여한 주부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있다.

8. 기술정보 활용능력 배양

21C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농업인들의 PC 활용과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직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하였다. '99년에 영동대학과 금강정보센터와 협력하여 주간, 야간 2교대로 5회에 120명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컴퓨터 기초, 한글 97, 인터넷 활용방법을 주로 교육하여 농가에서 직접 PC를 활용하여 실용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업인에게 전산교육을 실시한바 호응도가 높고 학습조직체 회원들의 요구에 의해 2000년도에는 확대 실시하고 있다. 농업인에게 PC활용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우선 PC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여 무궁한 정보의 세계를 공유할 수 있도록하면 점차 농업정보를 직접 응용하여 경영진단과 평가를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이버 직거래 지원을 위해 포도, 사과, 배, 가공품등 12종의 군내 우수 농산

물을 홍보하며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였다. 또한 농가 경영개선 지원을 위해 포도등 12품목 200 농가에 대해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전문지도사로 하여금 중점지도 하고있다.

9. 전문지도 역량의 강화

농업인들의 기술지도를 하고있는 농촌지도사가 그들에 비해 실력이 뒤떨어지면 그 농업기술센터는 무용론이 대두될 것이다.

세계화의 여파로 농업연수를 위해 해외를 다녀오는 농민도 많고 각종 교육을 통해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해 우선 전 지도사가 전문지도연구회에 가입 활동토록 하였고 분기별 연찬회에 꼭 참석토록 조치하여 전문 기술능력을 향상토록 하고있으며 수출관련 업무 지원을 위해 행정자치부 어학연수를 비롯해 5명에 대해 어학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포도등 전문분야 해외연수를 다녀온 직원이 13명이고 학회 가입도 적극 권장하여 자생식물학회를 비롯한 8개학회에 9명이 가입되어있으며 축산 기술사를 포함한 전문 자격증 소지자가 13명으로 타 지역에 뒤지지 않은 전문지도역량을 갖추고 있다. 지방화 이후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 전문화의 필요성은 더욱 크게 대두되고있고 지도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일선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굳은 의지와 사명감을 갖고 최우선의 과제로 전폭적인 지원이 요청되고있다.

10. 고객 중심의 지도사업

80년대 이전 관 주도의 행정에서 공개행정, 열린행정으로 변화되고 있고 농촌지도사업도 최대의 고객인 농업인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업전개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를위해 우리는 '96년부터 농촌지도사업 평가회와 명년도 사업설명회를 농업인 학습조직체 임원 200여명을

초청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다. 농업인이 원하는 지도과제를 발굴하고 명년도에 실시할 시범사업을 공개하고 설명하여 희망하는 모든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신청한 농업인들을 선정함에 있어 분야별 농업인 대표를 심의에 참여시켜 공정한 심사로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읍면의 지소와 상담소가 있을 때에는 사랑방 같이 드나들던 농업인들이 상담소가 폐지되면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 농업인에게 한발짝 다가서는 지도사업 전개를 위해 '99년도 주요 영농기에 오지위주로 야간 및 주간영농 상담반을 8개조로 편성하여 운영한바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연간 140여회 실시하며 영농상담을 겸하여 추진하고있으며 읍면 담당지도사를 지정하여 주기적인 순회 활동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인식을 정립해주고 농업인들의 불만을 어느정도 해소시키고 있다.

농촌지도의 대상은 농업인들로 이들은 우리 조직의 활동에 최대의 고객이며 이들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의 존속이 의미가 없다. 고객 중심의 최대한의 서비스 정신으로 무한 봉사할때 농촌지도사업은 더욱 빛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국가 전체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제 살을 깎아내는 구조조정을 해왔고 농촌지도분야의 구조도 축소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이 작아져 가지만 경제적인 논리로 포기할 수 없는 분야이며 이러한 농업의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촌지도사업은 단순한 기술의 전달자가 아닌 문제 해결과 개발을 더불어 수행하는 지역농업의 파수꾼이 되어야 하리라 본다.